

오륜기 모형서 사진 찍고 한복 체험 '작은 지구촌' 화기애애

선수촌 풍경

강릉에 작은 지구촌이 만들어졌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92개국 선수들은 강릉과 평창에 보급지리를 마련하고 결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강릉선수촌에는 빙상 종목의 선수들이 묵고 있고, 평창선수촌에는 설상 종목에 나서는 선수들이 짐을 풀었다.

6일 선수촌 미디어 공개 행사가 열리면서 선수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눈길이 쏠린 곳은 강릉 선수촌이었다. 이날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빙속 여제' 이상화가 강릉선수촌에 입촌했고, 남북이 하나가 된 여자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숙소 앞에 걸여 놓은 국기들로 형형색색을 이루고 있는 선수촌에는 살을 에는 칼바람이 종일 불었지만 길을 오가는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다.

가장 부지런히 움직인 선수들은 오렌지색 점퍼 차림의 네덜란드 선수들이었다. 이들은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오렌지색의 옷에 맞춰 오렌지색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5연패를 노리는 캐나다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우승 후보'다운 여유를 보였다. 훈련을 마치고 선수촌으로 돌아온 선수들은 사진 명소인 오륜기 구조물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금메달 사냥에 나서는 브라이언 제너도 "손이 얼 것 같다"고 웃으면서도 모델이 되어 포즈를 취했다.

한반도가 달린 흰색 점퍼 차림의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도 관심사였다. 함께 팀을 구성하기는 했지만 남과 북의 선수들은 다른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 이날 여자아이스하키 공식 경기장인 관동하키센터에서는 정예멤버로 첫 훈련이 이뤄졌다. 함께 훈련을 했던 남북의 선수들은 선수촌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했다.

92개국 강릉·평창에 동지 숙소 앞엔 형형색색 국기들 삼삼오오 오가며 밝은 얼굴 빙속 3연패 도전 이상화 입촌 北 인솔자 "마음이 뜨겁다"

훈련을 마친 정수현, 려송희, 김은향, 황충규, 최정희 등 북한선수들은 "빨리 가서 쉬고 싶다"며 인공기가 걸린 숙소로 향했다.

이들을 인솔한 북한 관계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다시 만나게 된 게 오랜만이지 않나?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좋다.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좋겠다"며 "이곳 날씨가 상당히 춥지만 단일 팀으로 함께 하게 되면서 마음이 뜨겁다. 추운 줄 모르겠다"고 웃음을 보였다.

경쟁자가 되어 만나는 아이스하키 자매의 만남도 훈훈했다. 다른 피의 자매, 한국 수비수 박윤정과 미국 공격수 한나 브랜트가 그 주인공이었다. 언니 박윤정은 한국 출신 입양아다. 미국에 입양되어 마리아로 살아왔던 박윤정은 이번 올림픽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출전한다. 동생 한나도 미국 대표팀에 선발되면서 두 사람은 언니의 고향에서 재회했다.

마침 이날 훈련이 끝나고 마주친 두 사람은 잠시 자리를 잡고 대화를 나눴다. "나의 최고의 친구다"고 동생을 소개한 박윤정은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 시간이 되면 이렇게 종종 만난다. 이곳에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촌에는 선수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개인 운동을 할 수



올림픽 5연패에 도전하는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강릉선수촌 오륜기 구조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 박윤정(왼쪽)과 미국 대표팀의 한나 브랜트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미국에 입양됐던 박윤정은 한나와 자매사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

있는 피트니스 센터, 마사지 의자와 포켓 불대 등 오락시설이 구비된 레크레이션 센터, 한복 등을 입어볼 수 있는 전통 문화 체험관 등에는 선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 선수촌에는 선수들의 건강한 올림픽을 위해 다양한 과목의 진료를 볼 수 있는 폴리클리닉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 등도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한민국 당신이 흘린 땀을 기억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한국 선수단 숙소 앞으로 네덜란드 선수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쇼트트랙 남녀대표팀이 6일 오후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

쇼트트랙 금빛 질주 시작됐다

'계주' 위주 첫 공식훈련

한국의 전통적인 '메달밭' 쇼트트랙의 금빛 질주가 시작됐다. 김선태 총감독이 이끄는 쇼트트랙 대표팀이 6일 강릉 강릉영동대 쇼트트랙 보조훈련장에서 첫 공식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훈련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전날 강릉선수촌에 입촌한 대표팀은 전날 저녁 예정됐던 훈련을 취소하고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썼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뒤 빙판에 오른 선수들은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동글게

모여 어깨동무를 한 채 화이팅을 외치며, 안방에서 열리는 '지구촌 스포츠 대축제'의 선전을 다짐했다.

첫 훈련은 '계주'에 초점이 맞춰 진행됐다. 대표팀은 남녀 계주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자대표팀의 서이라(26·화성시청)는 "각오가 남다르다. 남자팀 모두 '우리 한번 일내보자'는 마음가짐이다"며 "준비는 이미 끝났다. 두 번 오지 않을 세계인의 축제를 즐기고 싶다"며 밝은 표정으로 소감을 밝혔다.

여자대표팀의 '판언니'인 김아람(23·한국체대)도 "몸 상태는 모두 좋다. (계주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훈련하고 있다.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

드리는 무대가 됐으면 한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쇼트트랙은 우리나라 역대 동계 올림픽 금메달 26개 중 21개를 캐낸 '메달밭'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역시 쇼트트랙은 한국인 목표로 내건 8개의 금메달 중 4개 이상을 겨냥하고 있다.

대표팀은 오는 10일 남자 1500m 결승에 이어 17일 여자 1500m, 남자 1000m에서 금빛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다. 금메달을 내다보고 있는 여자 3000m 계주는 20일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2일에는 쇼트트랙 여자 1000m와 남자 5000m 계주가 펼쳐진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男 아이스하키 실전에 다가간다"

백지선 감독 '자신감 업'

"첫 경기는 워낙 어렵습니다." 두 번째 평가전을 3-0 완승으로 이끈 백지선(51·영어명 집 백)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팀 감독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나"라고 호소하는 듯했다.

한국 대표팀은 5일 인천선학링크에서 열린 카자흐스탄과 2차 평가전에서 3-0으로 완승했다.

이틀 전(3일) 카자흐스탄에 1-3으로 패한 뒤 "선수들이 감각을 키우는 중"이라고 말했던 백 감독은 2차전 승리 뒤 "오늘은 실전과 가깝게 경기했다. 정확도가 올라갔다"고 선수들의 기를 살렸다.

1라인(김상욱, 김기성, 마이크 테스트워드, 브라이언 영, 김원준)이 공격 면에서

다소 부진한 것에도 "아이스하키를 특점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실점하지 않는 게 1라인의 장점"이라고 두둔하고, 부상 후 다소 주춤한 브락 라던스키를 향해 "그는 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사령탑이 느끼는 감정 이상으로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는 백 감독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답이었다.

백 감독은 "오늘 승리의 주역은 선수단 모두"라고 말하며 특정 선수나 아닌, 모든 선수의 마음을 때만쳤다.

이제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카자흐스탄보다 한 수 위의 기량을 지닌 슬로베니아(8일), 러시아(10일)와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고 나면 평창 올림픽 리허설이 모두 끝난다. /연합뉴스

봅슬레이 원윤종 남북 공동기수 선정...모태범 선수 선서

남자 봅슬레이의 간판 원윤종(33·강원도청·사진)이 9일 오후 8시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 때 한반도 기를 들 우리나라 기수로 선정됐다.

6일 대한체육회와 체육계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달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기수로 등정한 원윤종을 역사적인 남북 공동입장의 기수로 최종 낙점하고 이를 평창동계올림픽 정부합동지원단에 보고했다.

체육회는 공동기수에 의욕을 보인 원윤종을 일찌감치 기수 후보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윤종이 개막 7년 후인 15일에 경기에 나서는 점도 고려했다.

원윤종과 더불어 한반도기를 들 북한 선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제대회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은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 이래 역대 10번째이자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 게임 이래 11년 만에 이뤄진다.

이번 공동기수 순서는 남남북녀(南男北女) 차례로 북한은 전체 선수단의 주축인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중 한 명을 공동기수로 추천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역시 우리 선수단 결단식에서 남자 주장으로 선수선서를 한 스피드 스케이팅 모태범(29·대한항공)은 개회식에서도 전 세계에서 온 선수를 대표해 선수선서를 할 유력한 후보로 전해졌다.

모태범과 선서문을 함께 낭독할 여자 선수 역시 북한 선수단의 일원일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